

젝스키스, 28일부터 데뷔 20주년 전시회

그들젝스키스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연다.젝스키스는 28일부터 5월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6-1에서 '옐로 유니버스(YELLOW UNIVERSE)'를 펼친다.해체 이후 17년 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과 함께 무대영상 및 소장품 등을 전시한다.또 멤버들의 개성이 담긴 오디오 가이드도 설치된다.



아이돌 뜨거운 우정 2면 ▶▶▶

활동 못한 솔지와도 수익 나누는 EXID

'이클립스' 제작전 공동분배 약속
6년차 불구 멤버 개별수익도 공유

결그룹 EXID가 멤버간 수익배분에서 남다른 동료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미니앨범 '이클립스'를 발표하며 4인조로 활동 중인 EXID는 이번 활동에서 제외된 솔지와도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활동 6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멤버 개별수익도 다른 멤버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감성상능 향진증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한 솔지는 이번 신작에서 타이틀곡 '낮보다는 밤'뿐만 아니라 5곡의 수록곡 어디에도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팀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 EXID 활동은 솔지를 제외한 LE, 하니, 정화, 해린 등 4인의 묵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클립스' 활동에 따른 수익을 솔지와는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멤버들은 컴백에 앞서 소속사 측과 음반 활동 준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솔지와 수익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올해로 활동 6년차를 맞은 EXID는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대체로 신인시절엔 개별 활동에 따른 수익을 다른 멤버들과 똑같이 나누다가도 인지도가 생기고 활동이 많아지는 3~4년차쯤 되면 개인이 발생시킨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기 편차에 따라 멤버간 소득격차가 생기고 간혹 반목의 원인이 되



'솔지를 위해!' 결그룹 EXID가 건강 이상으로 새 앨범 '이클립스'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멤버 솔지와 수익을 배분하는 의리로 훈훈함을 안겼다. 사진은 10일 열린 '이클립스' 쇼케이스 모습. 스포츠동아DB

도 한다. 하지만 EXID는 인지도도 높고 활동량도 많지만, 멤버들의 뜻에 따라 여전히 '이익공유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데뷔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다 2014년 '위아래'의 역주행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EXID는 평소 멤버들끼리 우애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활동에서

도 네 멤버가 여러 방송을 통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솔지를 위로하고 있다. 솔지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찾아가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 서로를 향한 따뜻한 모습이 알려져 잔잔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ID는 메인보컬 솔지가 빠지면서 음악 색깔의 변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클립스'가 발표 첫 주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4위에 오르고, 타이틀곡 '낮보다는 밤'은 공개 직후 중국 인위에다 이 차트와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고소영도 "5월9일 투표합니다" 연기자 고소영이 투표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장미꽃을 들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다. 손에 든 장미꽃은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뜻한다. 이번 활동한 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 '0509 장미 프로젝트'에서 고소영은 이순재, 박근형, 김성령, 이병헌, 고수, 서지혜, 류준열, 비와이 등 37명의 스타들과 함께 했다. 관련 사진과 영상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제공 | 김영은 스튜디오

연예뉴스 스테이션

개그맨 황현희, 흑인 희화화한 분장 논란



황현희

개그맨 황현희가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개그우먼 흥현희가 19일 SBS '웃찾사-레전드매치'에서 흑인을 희화화한 분장으로 무대에 올라 흑인 비하 논란을 모은 것이었다.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황현희가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황현희는 샘 해밍턴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면서 "예전에 '시커먼스'라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개그도 흑인 비하인 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흑인을 소재 삼은 코미디물의 인종차별 논란 등에 대한 또 다른 안일한 생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달수·박해일·수애, 시나리오작가협 상수상

배우 오달수와 박해일, 수애 등이 시나리오 작가들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들은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 주최하고 27일 오후 3시30분 전북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여는 '시나리오 작가의 날'에서 수상한다. 오달수는 캐릭터상, 박해일과 수애는 남녀배우상, 이재용 감독은 감독상을 각각 품에 안는다. 27일 개막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사전행사이기도 한 이번 행사는 시나리오의 발전과 작가 위상 강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무대다.

최백호, 이번엔 화가로...28일까지 개인전

가수 최백호가 이번엔 화가로 관객을 맞는다. 최백호는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뮤직스팡스에서 개인전을 펼친다. 가수뿐만 아니라 미술작가로도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온 그가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나무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최백호는 이번 전시회의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한 원로 음악인과 독립음악인들의 창작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백호는 3월에 이어 5월 부산, 대전, 대구, 성남 등 4개 도시에서 콘서트 투어를 진행한다.

유노윤호-최강창민, 군 휴가도 형을 위해...

유노윤호 제대 날 최강창민 휴가 15년 지기... "동방신기 이제 시작"

두 멤버의 우정이 끈끈하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2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 같은 그룹 멤버인 최강창민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홍보단에서 복무 중인 최강창민은 유노윤호의 제대일에 맞춰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동 모처에서 절친한 친구 등 여럿이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자리를 해 군 생활과 향후 활동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제대로 뉘엿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연습생 시절을 포함해 15년이 넘는 기간 함께 생활해온,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다. 나란히 군 복무를 할 당시에도 휴가를 맞춰 나오기도 하는 등 서로를 각별하게 챙겼다. 두 사람의 한 측근은 23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라면서 "군 복무로

생긴 팀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관한 고민 등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강창민이 8월 제대하면서 향후 활동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발표한 스페셜 앨범이 마지막이어서 더 늦지 않을 시기에 동방신기의 새 앨범을 내놓고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최강창민 유노윤호

민도 재계약 불투명...미쓰에이, 7년 징크스?

투에니원 등 많은 그룹 7년 재계약 불발
수지 1인 기획사 무계...그룹 유지 위기

결그룹 미쓰에이는 '마의 7년'을 넘어설 수 있을까.

미쓰에이의 간판 멤버 수지에 이어 메인보컬 민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최근 만료되면서 그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재계약 논의는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지와 민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지와 민의 재계약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재계약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수지의 경우 1인 기획사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은 뮤지컬 '꽃보다 남자' 더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뮤지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어 소속사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중국인 멤버 지아가 계약이 만료돼 팀을 떠나 3인조로 축소된 상황에서 수지와 민의 재계약도 아직 안개속이어서 미쓰에이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마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가수들이 7년 계약을 맺는 가운데 포미닛, 투에니



미쓰에이

원, 레인보우 등 많은 그룹들이 재계약 시점인 7년을 넘지 못해 '마의 7년' '7년 징크스'란 말이 생겼다. 미쓰에이가 이를 극복할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유다.

최근 민의 뮤지컬 현장에 지아와 페이가 찾아가는 등 멤버들의 우애가 깊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YP 측이 수지, 민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다. 페이는 지난해 재계약을 맺었다.

미쓰에이는 2010년 '베드 걸'로 데뷔해 그해 각종 신인상은 물론 엠넷 음악시상식 'MAMA'에서는 대상적인 '올해의 노래'상을 받는 등 데뷔 첫 해부터 큰 인기를 누렸다. '허시' '다 큰 남자 말고 너' '남자 없이 잘 살아' '터치' 등 히트곡을 남겼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돈 안되는 일일드라마, MBC도 없애나...

8시55분 방송 예정 드라마 폐지 고려
"제작비 대비 수입 적어 심각하게 고민"

이달 초 SBS에 이어 MBC도 저녁 일일드라마 편성에서 손을 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3일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평일 오후 8시55분부터 시작하는 일일드라마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하고 있는 '황금주머니'의 후속작 '별별 며느리' 이후 방영 예정이었던 '전생에 웬수들' 편성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SBS는 5월부터 오후 7시대 저녁 일일드라마를 폐지키로 했다.

MBC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평일 오후 일일드라마를 7시15분과 8시55분에 편성해 방송해왔다. 이 가운데 8시55분 드라마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7시15분 드라마는 그동안 SBS와 비슷한 시간대를 두고 경쟁해왔다.

MBC는 8시55분 일일드라마가 경쟁력이 없어도 그동안 화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일일드라마가 보통 120부작으로 편성돼 회당 5000~6000만원(총 60억)을 제작비로 쓰고 있지만 그만큼 광고를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수익 불균형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가 오후 7시



현재 방송중인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20분부터 방송하는 '사랑은 방울방울' 이후 저녁 일일드라마를 폐지키로 한 것도 적자 규모가 점차 커진 영향이다.

관계자는 "MBC는 일일드라마 직전 방송하는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청자의 신뢰를 잃었고, 드라마는 밤 9시 KBS 1TV '뉴스 9'와 시간이 겹쳐 시선을 모으기에 최악의 환경이다. 관계자는 "MBC 내부적으로 해당 시간대 일일드라마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제작비 대비 수입이 적어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영화 랭킹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4월 16일~4월 22일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2,330,561	04/12
2	아빠와 딸	479,402	04/12
3	미녀와 야수	4,980,989	03/16
4	프리즌	2,909,674	03/23
5	파워레인저스: 더 비기닝	44,506	04/20
6	라이프	455,296	04/05
7	히든 피겨스	423,693	03/23
8	오두막	21,969	04/20
9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27,531	04/13
10	어느날	231,164	04/05

1위 영화 정보보기

편집 | 최해림·김정호 기자